



그레이스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13:18)



가족 사진: 케냐의 혼한 교통수단인
세발 오토바이 특특 TukTuk 으로 이동하여

샬롬! 로고스호프에서 신 선교사 가정 인사드립니다. 올 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폭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로고스호프도 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던 8월이었습니다.

아랍지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향하는 항해를 8월 3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오만 무스카트에서 살라라의 항해가 너무 거칠어 이번에는 제발 잔잔하기를 많이 기도하고 시작한 항해였는데요, 그 전의 힘들었던 항해를 지나서인지 이번에는 흔들리기는 했지만 멀미약을 먹으며 잘 버텼습니다.



지난 8월 로고스호프의 항로

항구에 정박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 반면 항해가 거칠어서인지 8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8일 간의 긴 항해를 끝내고 드디어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아름다운 섬 세이셸 Seychelles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척박한 아랍지역만 다니다 커다란 초록나무들과 우리를 반겨주는 세이셸 빅토리아 항구 환영팀의 공연이 그동안 힘들었던 항해를 싹 있게 하였습니다. 직접 만든 노래와 춤으로 저희를 환영하는 세이셸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고, 세이셸에서의 시간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이셸 공화국은 인도양 서부 마다가스카르 북동쪽에 있는 섬나라인데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를 받다 1976년 6월 독립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로고스호프를 통해 처음으로 가보게 된 세이셸이 왜 신혼여행지로 유명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연이 아름답고 날씨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이셸에서의 사역은 7일간 밖에 없었지만 서점에서의 서적 판매율은 어느 항구보다 높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저희의 방문을 너무 반가워했고 매일 매일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책을 사갔습니다. 여러 인종이 살고있는 곳이라 다양한 교회와 기도결기 등 사역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로고스호프 선발대팀과
현지 약단의 환영 중에 항구 입항하며



서점 개점식 리본 커팅을 하는
세이셸 대통령과 영부인



항구 밖 로고스호프를 방문하려는 긴 행렬

무엇보다 아랍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없고 조심해야 했기에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과 모습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신실한 신자이신 와벨 람칼라완 세이셸 대통령의 지원으로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역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과 활발한 사역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8월 15일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온 스티븐 **24세** 형제가 팀 아웃팅을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간절히 찾기를 바랬지만 다음날까지도 현지 구조대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17일에 출항하기로 했던 계획을 18일로 미루고 형제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17일 형제의 시신을 구조대가 찾아 친한 친구들은 영안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몇 명이 세이셸에 남아 형제의 아버지와 말라위 대표리더를 기다리고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했고, 그 이후 로고스호프의 단장님과 오엠 아프리카 지역 대표 분이 말라위를 방문해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도 케냐로 가는 항해 중 장례식을 생방송 영상으로나마 함께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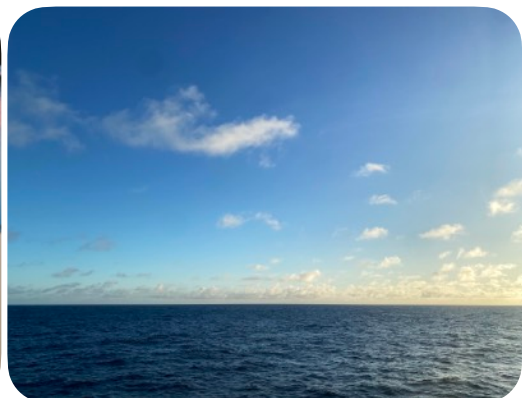
스티븐은 평소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친구로 이번 9월에 본국으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공부하고 여자친구와 결혼도 약속한 젊은 형제였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있을 형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과 교회, 친구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형제의 지인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발치에 정박되어 있는 로고스호프



선내 IT 부서에서 사역한
말라위 출신의 스티븐 선교사



케냐로 향하는 항해 중에



케냐로 떠나는 5일동안의 항해는 전에 비하면 순탄했지만 선내 분위기는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마음으로 참 쉽지 않은 항해였습니다. 케냐에 도착한 로고스호프는 사역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22일 케냐, 몸바사 **Mombasa** 항구에 도착하여 많은 방문객과 사역을 교회와 여러단체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고스호프는 2월, 9월 새로운 선교사들을 받는 시기인데 이 때에는 떠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공존하여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정말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선교사들에게 배가족에대해 설명하고 있는 도은혜 선교사



케냐 몸바사 항에 정박한 로고스호프



부서 배치가 적힌 봉투들을 열고 환호하는 새로운 선교사들

이번에는 특별히 11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떠나고 31개국에서 89명의 선교사들이 새로 승선해 어느 때보다 바쁜시간이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신사랑 선교사가 훈련부서로 약 2주동안 승선 오리엔테이션, **PST- Pre-Ship Training** 진행과 강의들을 했었을텐데, 이번에 인사부 **Personnel**로 이동하고는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선교사들을 한 명씩 면담을 하여 필요한 부서 배치와 방 배정 등 여러 행정 업무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이들 학교도 방학을 3주 넘게 하여 도은혜 선교사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리고 새롭게 맡게된 패밀리 코디네이터 **Ship Family Coordinator**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어떻게 가는 지 모를 만큼 로고스호프에서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바쁜 사역가운데 주님과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주세요

1.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 배에 승선한 선교사들이 배에 잘 적응하고 주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2. 스티븐 형제의 가족과 교회, 지인들 그리고 동료들 잃은 로고스 호프 선교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3. 저희가 새롭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하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케냐, 몸바사

8월 21일 ~ 10월 4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10월 5일 ~ 10월 23일

마다가스카르, 안치라나나

10월 26일 ~ 11월 14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